

템플스테이에 가면?

영어교육도 있고~ 실직자 희망도 있고~

현대인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벗어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쉽지 않다. 보다 가치 있는 건강한 삶, 웰빙, 로하스의 삶을 살고 추구한다.

최근 한국관광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템플스테이가 특화·진화를 거듭하며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전국 100여 사찰은 '참 나'를 찾고 싶은 사람부터 어린이, 실직자 가정, 전역을 앞둔 군인,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방학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교육이 눈에 띈다.

김천 직지사(054-436-6084)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들의 영어캠프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MIT 출신의 원어민 교사가 교육을 맡았다. 초등학교 3~5학년생을 대상으로 8월 1~10일, 12~21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인당 50만원으로 특별한 영어캠프를 다녀올 수 있다.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02-6012-1731)은 8월 7일 충남 공주 마곡사 경내에서 '어린이 영어 담마 캠프'를 실시한다. 영어 잠선지도, 물놀이, 영어 법회 등 간단한 생활영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생태의 보고 지리산 **남원 실상사**(063-636-3191)는 '생명평화 100배 서원 절 명상' '실상사 농장체험' '지리산 숲길 명상' 등을 진행한다. 7월 15~18일, 23~25일(어린이), 29일~8월 1일, 8월 5~8일 실시한다. 화엄학원 확장 법인 스님, 연구원장 혜강 스님, 도법 스님 등의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실직자와 실직가족, 청년실업자, 이주노동자가 용기와 희망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템플스테이도 다양하게 운영된다.

제주 약천사는 '희망 일터강화' '한라산 등반' 등으로 실직자들의 새 출발에 기반을 다져준다. 그 밖에 천연감물염색, 제주생태문화체

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구 동화사(053-985-4406)는 실직자와 이주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6월 19~21일 시작으로 3개월간 실직자를 위해 희망과 용기를 준다. 6월 28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초대해 사찰예절과 순례, 다도체험, 한시 배우기 등 전통문화와 불교를 알리는 템플스테이를 연다.

밀양 표충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나무 숲 잠선, 어린이를 위한 <부모모듬경>, 승마, 활쏘기, 땅 짚고 일어선기 등 수련형, 휴식형, 승병학교 형식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템플스테이도 있다.

영월 법흥사는 '아빠 미안해하 지마' '꿈꾸며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고창 선운사**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 소리 배우기' '소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화합에 초점을 맞췄다.

인제 백담사는 6월 19~21일 군 전역을 앞둔 군장병을 위한 '아름다운 병역 희망찬 전역', 실직자를 위한 '실업극복 직장 찾기'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단기출가 형태도 있다.

평창 월정사(033-332-6661)와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053-474-8228) 단기출가학교는 수계식과 사발식을 시작으로 행사 경험을 한다. 월정사는 7월 1~23일, 대관음사는 1~15일 속세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본래의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찰은 1년 365일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다. 1인부터 직장인 단체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변경도 가능하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02)2031-2000, www.templestay.com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 개원

지운 스님 "불법 따라 명상 지도하고자"

불교 명상이 붓을 일으키며 명상을 일으키며 명상센터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수행법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이가 많다. 이에 전 동화사 강주 지운 스님이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 명상센터를 개원하고 올바른 수행법 알리기에 나섰다.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 개원식에서 점인의식을 진행하는 스님들. 왼쪽이 지운 스님.

6월 16일 열린 개원식에서는 전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포항 천곡사 주지 정오 스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 점인식을 봉행했다.

지운 스님은 봉행사에서 "경전에 의거해 제대로 된 법에 따라 명상을 지도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며 "자비의 불성으로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아픔과 슬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수행은 자비 손(手)으로 몸의 현상을 관찰하는 자비수관(慈悲手觀), 자비수관(慈悲水觀), 자비향관(慈悲香觀) 수행과 차(茶)마음을 통해 내적 관찰을 하는 자비다선(慈悲茶禪) 수행이 있다. 자비선 수행은 내면에 내재돼 있는 자비심을 발현시킨다. 서로가 자비의 마음을 나누며 복잡하고 긴장된 사회생활로 몸과 마음이 불편해진 문제의 원인을 직관하도록 한다. 자비심으로 불평등과 불만족, 긴장과 두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이다.

붓다 메디테이션 스쿨은 2010년부터 2년 과정으로 자비수관, 자비다선, 유식, 중론 등의 경전 강좌와 자비선 실참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070)7724-8824

이상언 기자 · 손법현 대구지사장

연꽃어린이 연합캠프

불레협, 7월 25·27일

참가인원이 적거나 운영이 어려워 여름불교학교를 하지 못하는 사찰을 위한 어린이 캠프가 열린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목, 이하 불레협)는 법회 참가인원이 30명 이하의 어린이 법회 사찰과 여름불교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찰을 대상으로 7월 25~27일, 7월 27~29일 2차례 '연꽃어린이 연합 캠프'를 개최한다.

전국 사찰 어린이 200여 명이 함께 하는 이번 캠프는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진행되며 체계적이고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1인당 참가비는 숙식비, 기념품, 교통비 포함해 4만원이다.

불레협 관계자는 "연꽃 연합캠프는 어린이들에게 각 지역 어린이 법회 어린이를 만나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며 "많은 사찰의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38-7860

이상언 기자

여성불자 108인 진솔한 신행담 담아

불교여성개발원, '마음의 빛으로' 출판기념회

여성불자 108인의 불교와 삶에 관한 이야기 <마음의 빛으로>가 출판됐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6월 16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제3차 여성불자 108인 <마음의 빛으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포교원 구실 사무국장 원교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前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 여성불자 108인 텔런트 전원주·선우윤녀씨 등 150여 사부대중이 자리했다.

불교방송 이선희 아나운서(제3차 여성불자 108인의 사회로 시작된



왼쪽부터 방송인 선우윤녀·전원주씨, 혜종 스님, 정덕 스님, 이은영 원장이 출판기념회 축하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인사말,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 불교여성개발원 바자 현장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혜종 스님은 격려사에서 "여성불자 108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탈하고 생생 하면서도 진실성 있게 담아 더욱 빛난다"며 "부처님의 지혜로 능동적

이며 역동적인 삶,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은영 원장은 "각 분야에서 보살행을 하고 있는 우바이들의 이야기가 어려운 이들에게 격려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의 빛으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여성불자 108인들의 진솔한 신행담과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은 6월 16~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지하 갤러리에서 불교와 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업기념마련 바자도 열었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Wow~ 아름다워요 한국"

국제포교사회, 이주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는 6월 14일 외국인 이주 근로자 100여 명과 서울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몽골, 방글라데시 스님과 100여 명의 근로자들은 서울 조계사, 불교중앙박물관, 길상사, 창경궁, 국립서울과학관, 윤현궁 등을 관람했다.

국제포교사와 각 나라 스님들은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합창의 의미와 하는 법, 사찰이나 법당에서의 예법, 탕화, 불상, 경전, 목판인쇄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연과학 전시물, 과학의 발전 과정, 인체의 신비 등을 볼 수 있었던 국립서울과학관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밖에도 참가자들은 창경궁에서 영조대왕 오순생일 잔치(어연례) 재현 관람, 전통 의상



방글라데시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이주인 노동자들에게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 한복입어보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는 제14기 기초불교영어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7월 11일부터 9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열리며 불교교리, 역사, 부처님의 생애, 문화 등 불교 전반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 (02)722-2206

이상언 기자

신행담 게시판

●**금정 스님 무료 불교 선요가**= 대원불교문화대학이 네팔에서 10년간 전통 선요가를 수행한 금정 스님의 무료 불교 선요가 특강을 마련했다. '선요가' 강의도 함께 '유식 30송'에 대한 강의도 진행된다. 강의는 7월 2일~8월 28일 매주 목, 금 오후 3~5시, 오후 7~9시 대원불교문화대학 3층 다보원 법당에서 열린다. (02)707-1072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진행**=상좌불교 한국명상원(구 한국 위빠사나 선원)은 7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2시 제 20차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진행한다. 한국위빠사나선원 이종숙씨가 지도하며

수행에 대한 이론 60분, 경행 30분, 좌선60분, 명단의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5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한편, 7월 5일 오후 2시 대구 구도회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회를 봉행한다. (02)512-5258

●**'위빠사나 아나빠나싯띠' 집중수행**=위빠사나붓다선원은 6월 25~29일 오후 4시 충남 전통면 붓다라마(구 지장사)에서 '위빠사나 아나빠나싯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수행자 개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에서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김평원 법사가 지도한다. 참가비는 10만원으로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041)868-311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09년 7월 9일까지

◆개강일시 : 2009년 7월 10일 매주(금) 오후 5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대한불교 금강종

불 나라안정 기원 및 합동 보살 수계 대법회 행

삼보님 전에 지심 귀의하옵고

본 종단의 중지중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전미개오(轉迷開悟)하여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하며 마침내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반야지혜(般若智慧)를 깨달아 정법(正法)을 구현하며 상구보리 하회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행동하는 데 신구의(身口意)를 떠난 것이 없기에 신구의로써 모든 악행(惡行)을 안하고 선행(善行)을 한다면 이보다 완전한 것은 없으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망경은 대승(大乘)의 계본으로 보살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가 나옵니다. 기축년 윤 5월을 맞아 나라의 안정을 기원하고 보살의 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여 불교의 중흥과 나라경제의 안정을 성취코저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뜻 있는 여러 강호의 불자들에게서는 종단을 초월해서 일불제자(一佛弟子)라는 근본으로 수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7월 2일 (음력 윤5월 10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456번지 (인각사)
- 전 화 : 053)985-8118 / 011-406-8538 (사무총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
- 대 법 주 : 종정 무학 승천 대종사
- 증명법사 : 덕인, 법산, 무중, 월서, 무상, 법천, 법화, 법일, 도공 합장
- 준비위원장 : 학산 정대 ■ 추진위원장 : 법천 자산 ■ 봉행위원장 : 법산 영봉

(사)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